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6 April_ Vol.159





Cover story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삼성KPMG!

최근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간의 바둑 대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1년, 한 달, 하루 사이에도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빛 매미가 되기 위해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 던진다는 <손자병법>의 ‘금선탈각(金蟬脫殼)’도 이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뱀과 매미가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 삼성KPMG는 세계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삼성KPMG와 함께 고객 여러분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Contents

April 2016 Vol.159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Global Frontier**
브렉시트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어떤 영향 끼칠까?
- 06 **Team Spirit**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 08 **Client+**
500V
- 10 **Market Reader**
역학 관계로 내다본 미래 자동차 시장
- 12 **Excellence Report**
CEO COLUMN / ADVISORY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성인을 칭찬합니다!
- 16 **Talk! 연결고리**
동명이인 삼성인! 같은 이름, 서로 다른 우리
- 18 **이색삼성★**
테니스 플레이어 IGH본부 김승범 S.Senior
- 20 **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 22 **가자 세계로!**
인도차이나의 떠오르는 나라 베트남
- 24 **행복충전소**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26 **Samjong News**
삼성KPMG,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 어떤 영향 끼칠까?

지난 몇 년간 유럽경제는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남유럽의 경제문제와 더불어 난민 등의 여러 큰 이슈들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브렉시트(Brexit)'이다. 영국 Korea Desk의 황정환 Director와 함께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진단 및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영국인들이 바라보는 브렉시트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 브렉시트(Brexit).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며, 2012년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올해 6월 23일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은 EU로 인해 늘어난 책임에 비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브렉시트를 추진하게 됐다. 57조 원에 달하는 EU 분담금에 비해 EU 내 영국의 영향력은 8%로 미미한 점, 늘어나는 난민과 이민문제로 인해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위기감 증폭, EU 가입 이후 하락한 경제적 위상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한 EU에 대한 불만이 영국 내 브렉시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찬반의견은 현재 잔류와 탈퇴 혼전 양상을 보여 오는 6월 23일 국민투표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한 결과 잔류 43%, 탈퇴 40%로 잔류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찬성의견으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EU의 관료주의와 각종 규제비용에서 벗어나면서 영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영국의 EU 예산 기여액이 85억 파운드, 약 14조 9,142억 원으로 추산되며 EU 탈퇴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최근 난민 사태까지 겹치며 브렉시트 찬성여론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의견에는 EU 탈퇴가 득보다 실이 많으며 EU 잔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업은 영국 국내총생산인 GDP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산업이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런던에 자리 잡은 EU의 핵심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어 금융기관들의 30%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총수출의 약 45%는 EU에서 비롯되는 만큼 EU 탈퇴는 무역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브렉시트, 세계 경제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현재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1년에 약 56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볼 것이며, 영국에서 EU에 수출하는 35%가량의 상품에는 대부분 4% 이상의 관세가

매겨지고, 금융 서비스 부문 역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평가 절하가 예상된다. 실제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지난 2월 24일 기준 영국 파운드화는 파운드당 1.3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이후 7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세계 경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 체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이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 있어 EU 분열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가 기정사실화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 체코, 프랑스가 탈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EU에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재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EU 경제권에서 두 번째로 큰 영국의 탈퇴는 가뜩이나 취약해진 유럽에 대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영국의 경우 2030년까지 GDP가 전년도보다 14%가 감소할 것이며, 영국의 교역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룩셈부르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벨기에 등의 GDP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브렉시트, 국내 기업에 끼칠 영향 및 대처 방안

브렉시트 현실화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국내 수출 수요 감소와 금융시장에는 유로존 관련 불안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한국의 16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으나 영국이 EU에서 빠진다면 무관세 수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 등 무역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로존 해체 문제가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며, 당장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한국은 단기적으로 한-EU FTA와는 별개로 영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이에 영국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 환경 내에서 한-영 양국 간의 교역구조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 그에 가장 적합한 관세율과 산업규제 항목들을 파악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을 목표로 영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EU 역내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NTACT US

영국 Korea Desk **황정환** Director

Tel. +44 20 73112198 E-mail. jeonghwan.hwang@kpmg.co.uk





기업의 믿음직한 사업재편 파트너, 삼성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삼성KPMG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 효과적인 전략 마련 및 실행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사업재편에 관한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가치 회복과 경영성과 창출에 힘을 실어줄 삼성KPMG의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소개한다.

‘기활법’, 기업의 사업재편을 신속·간편하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부진과 과잉공급은 우리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그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철강, 조선, 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제정함으로써 저성장기조 탈출, 기업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지원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활법’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에 대해 기업이 적용받는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법률 전반을 아우르는 한시적 특례를 허용하겠다는 특별법이다.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칭 ‘원샷법’이라 불린다.

日 기업 부활시킨 ‘기활법’…韓 적용 시 주의사항은?

우리나라의 ‘기활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법률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의 극복과정에서 1999년 ‘산

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사후구제 방식의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해왔다. 일본은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있었으며(제조업 비중 57%, 대기업 비중 52%), 법안 적용을 통한 일본의 성공적 사업재편 사례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의 합병으로 탄생한 신일본제철주금은 세계 2위의 철강 기업으로 부상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가스터빈, 중소형 발전 및 화력발전설비 사업부를 통합하여 GE 및 지멘스와 글로벌 3강 체제 구축했다. 이처럼 선제적 지원의 효과를 확인한 일본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법안을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성장을 이끈 '기활법',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의 사업재편 방향에 '기활법'을 통한 혜택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단어적 의미 그대로 위기에 이르기 전에 적시성 있는 결정 및 실행이 중요하다. 사전적으로 적용과 혜택을 검토하되 긴 호흡과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산업 내에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종 산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재편의 필수적 절차요소다. 기업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기업가치 · 경영성과↑위해 올인원 서비스 제공할 것

'기활법'의 적용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산업별로 구성된 산업 전문가와 회계, 세무, 재무 등 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주요 서비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 및 전략수립
경영진단 및 사업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M&A 자문
사업재편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자문
사후관리

사업재편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고 전문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히 '기활법' 적용과 관련한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재편 이후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 관리(PMI) 등 전략수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재편 올인원(All-in-One) 서비스 제공해 나갈 것이다. 법령에 열거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회사의 설립은 물론이고, 사업재편 절차상 필요할 수 있는 사업재편 전략수립, 인수·합병(M&A)자문, 회계 및 세무자문, 경영진단 및 사업구조조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도 마련했다.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그동안 축적한 사업재편의 경험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업재편 선도자로서의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다. 특히 '기활법'은 한시적 특별법 안이지만, 사업재편과 그 가시적 성과는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기업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재편계획을 제시하여, 기업의 가치 회복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다.



CONTACT US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구조조정 & 사업재편

이재현 전무이사

Tel. 02-2112-0714

jaehyeonlee@kr.kpmg.com

박주홍 상무이사

Tel. 02-2112-0780

juheungpark@kr.kpmg.com

박현 이사

Tel. 02-2112-7428

hyunpark@kr.kpmg.com

회계 / 세무 / M&A 자문

강정구 전무이사

Tel. 02-2112-7629

jeonggukang@kr.kpmg.com

김정 상무이사

Tel. 02-2112-0993

jeongkim@kr.kpmg.com

윤창규 상무이사

Tel. 02-2112-0995

changgyuyoon@kr.kpmg.com

지배구조 / 전략수립 자문

한상일 전무이사

Tel. 02-2112-0832

sangilhan@kr.kpmg.com

오해균 상무이사

Tel. 02-2112-0887

haegyunoh@kr.kpmg.com

이동석 상무이사

Tel. 02-2112-7954

dongseoklee@kr.kpmg.com

Deal Advisory

민홍길 상무이사

Tel. 02-2112-6709

hmin@kr.kpmg.com

고병준 상무이사

Tel. 02-2112-0742

bgoh@kr.kpmg.com



500V COMPANY MANAGEMENT PLATFORM

얼라이언스 M&A 기반 혁신기업 '500V'

500V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을 아우르는 벤처연합 기업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벤처기업들 간의 얼라이언스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500 ventures of life & tech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무한경쟁의 시대에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 및 대형화, 글로벌화가 필수적이지만, 대기업 위주의 국내 경제구조하에서 개별 중소기업 혼자만의 역량으로 이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져도 화살 한 묶음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One arrow alone can be easily broken but many arrows are

indestructible)”는 칭기즈칸의 말처럼 작은 기업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500V의 생각이다.

500V는 ‘얼라이언스 M&A(인수·합병)’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들이 시너지를 도모해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500V는 IPO 중심의 단선적인 국내 기업의 엑시트(투자회수) 방법을 다각화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2배에 달하는 엑시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내 기업 생태계와 투자 생태계 모두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년에 50개 이상, 향후 10년 동안 총 500개 벤처기업을 M&A해나 갈 것을 계획하

고 있다. 이에 회사명도 500 ventures of life & tech, '삶과 기술에 기반한 500개 벤처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아 500VOLT로 정한 것이다.

■ 얼라이언스 M&A로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500V

500V 성장전략의 핵심은 '얼라이언스 M&A(Alliance M&A)'이다. '연합(Alliance)' 모델과 '인수·합병(M&A)'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M&A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지만 실제 비즈니스의 운영은 Alliance 형태를 유지하는 경영모델이다. 즉, '전략적 제휴를 위한 M&A'라고 말할 수 있다. '얼라이언스 M&A'는 얼라이언스 기업의 고유한 문화와 경영 방식, 그리고 경영권을 오롯이 인정해 주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얼라이언스 M&A'는 500V에 의해 새롭게 창안된 개념이기에, '얼라이언스 M&A'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다. 하지만, M&A를 토대로 한 기업연합 모델은 해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경영 방식이다. 1971년 철사와 플라스틱 바구니 제조업체로 시작한 WPP는 1985년 광고회사 사치앤사치 출신 마틴소렐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세계적인 광고회사 JWT와 오길비앤매더 등 수많은 회사를 M&A하는 방식으로 고속성장을 거듭, 세계 1위의 광고회사로 성장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역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세를 확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장 하위 업체들의 경쟁력을 결집시켜 리더로 뛰어올랐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지난 2010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신 30년 비전'에서 "향후 30년은 300년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2040년까지 30년간 5,000여 개 기업에 투자해 소프트뱅크를 300년 이상 지속하는 회사로 키울 것"이란 각오를 밝힌 바 있다.



■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해!

500V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해 M&A를 진행,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거쳐 기업연합의 형태로 빠르게 자본시장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00V는 23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총 25개 기업을 인수해 덩치를 키운 결과다. 올해는 M&A 속도를 높여 매출을 전년 대비 20배로 성장시키고자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말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이후 코스닥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500V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All for One, One for All)'라는 공동의 가치로 다양한 산업군의 온·오프라인·모바일 벤처기업들이 뭉쳐 각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리소스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Alliance 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루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00V

역학 관계로 내다본 미래 자동차 시장

전기차의 성장과 수소차의 등장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 일대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의 승자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삼성Insight>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갖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분석하고, 향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치사슬동맹에 주목했다.

자동차 시장의 트랜스포메이션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저유가가 지속 중이지만 오히려 동기간의 자동차 판매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자동차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기차의 수요는 전년 대비 64.7%로 증가했다. 아직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전기차의 판매증가율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2013년 현대자동차에 이어 2014년 도요타는 수소차 양산화를 시작했다. 2020년에 이르면 미국과 독일차 브랜드가 대거 수소차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기차의 성장과 수소차의 시장 진입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온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변화협약체제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자동차 시장의 구조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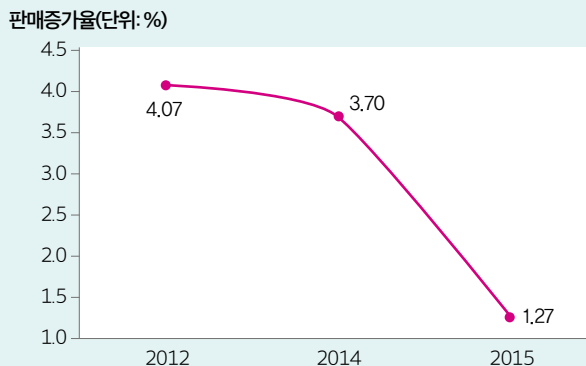
전기차와 수소차의 역학

역학이란, 부분을 이루는 요소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제약하는 현상을 말하는 물리학적 용어이다. 미래 자동차로 꼽히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산업 간 역학관계가 얽혀있다.

먼저, 전기차의 역학관계를 살펴보자. 전기차용 이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수요 증가로 희소금속인 리튬 가격은 2015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원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리튬 가격 인상은 배터리 제조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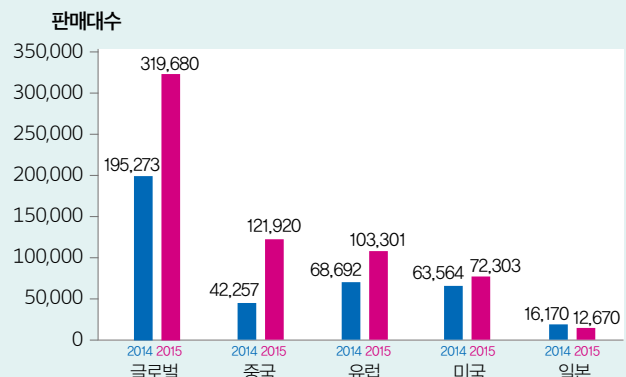
또한,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배터리 구성 핵심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 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분리돼 있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원가절감이 쉽지 않다. 배터리회사와 소재 기업 간의 협력, 또는 배터리회사 스스로의 R&D를 통해 얼마만큼 빠

글로벌 자동차 판매증가율 변동 추이



Source: LMC database(2016.1),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지역별 전기차 판매실적(2014년, 2015년)



Source: SNE Research,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르게 소재에 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느냐는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로 낙점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정부지원도 전기차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한 축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전기차에 5만4,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만2,000곳, 충전기 450만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정책과 맞물려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수요국인 중국의 정책 방향은 미래 전기차 시장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덕양 등 소수의 기업이 산업용 수소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수소생산기업의 주거래 대상은 석유화학 및 철강업체가 주를 이룬다. 아직 수소차의 수요가 높지 않아 수소생산업체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나, 이들 업체의 행보는 향후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충전소 건설 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수소차의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수소연료전지의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이 지목된다. 수소연료전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금 대체 물질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R&D를 통한 수소원료 전지의 원가 절감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가가 향후 수소차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지원 측면에서 수소차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수소차 지원정책은 수소연료를 차세대 에너지로 성장시킨다는 ‘수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대체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수소연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요인,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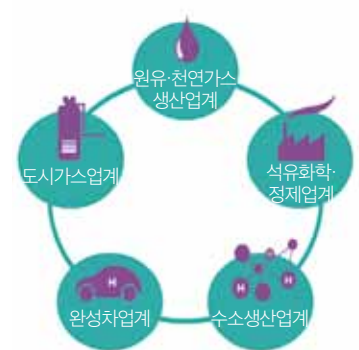
가격 측면을 보면, 전기차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수소차의 경우 연료전지개발에 완성차업체에서 높은 R&D 비용이 소요되고, 연료전지의 촉매인 백금 대체물질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가격 열위에 있다. **성능 측면에서는 수소차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수소차는 충전시간과 최대주행 거리에서 전기차를 압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차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긴 충전시간과 달리 수소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휘발유 주유와 유사한 속도로 충전할 수 있다. 반면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의 압도적 우위이다.** 전기차의 상용화 시기가 수소차보다 빨랐고, 누적보급대 수에서도 수소차는 전기차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아직 수소차의 판매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를 민간 주도로 건설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전기차 Value Chain Allianc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소차 Value Chain Allianc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래 자동차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열쇠, Value Chain Alliance

미래 자동차 시장의 향방은 전기차와 수소차,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교열위들을 얼마만큼 빨리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완성차업체가 단독으로 비교열위들을 극복하기에는 자본적,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유형의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표준이 될지에 따라 연관 산업의 먹거리도 함께 좌우된다. 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후방 사업과 연계한 가치사슬의 동맹체제(Value Chain Alliance)가 구축돼야 새로운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산업간 Value Chain 동맹으로 광물(리튬)-소재-배터리-완성차-발전업계를 연계한 구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수소차의 경우 원유·천연가스생산-석유화학·정제-수소생산-완성차-도시가스업계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0년 이상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자동차 시장의 최근 구조 변화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위기가자 새로운 성장기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산업 간 역학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여 가치사슬 간 동맹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달려있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doobeenyim@kr.kpmg.com

기업가정신, 기본으로 돌아가자



삼성KPMG CEO
김교태

CEO COLUMN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창업을 통한 혁신을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革新)'을 주창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법인기업을 기준으로 지난해 1일 평균 1.1만 개의 기업이 탄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발표(KOSIS)를 시작한 2008년에 1일 평균 139개였던 신설법인이 2015년에는 18배 증가한 255개 기업이 신설법인으로 등록했다. 창업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신생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5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신생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창업 기업의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 창업 이후 지속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신생 기업들의 기본 성공 요건 중 하나인 '라면 수익률(Ramen Profitability)', 즉 신생 기업이 집세를 내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익률을 넘지 못해 바로 폐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폐업 또는 청산하는 기업이 많은 사회는 이들이 재도전하도록 사회안정 확충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는 예측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 2008년에 창업해 세계적인 공유 숙박 서비스가 된 에어비앤비(Airbnb)도 사업 초기, 일주일 수입이 200달러에 불과했다. 어려웠지만 에어비앤비는 끈질김 하나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근이 운영했고, 2010년이 돼서야 라면 수익률에 도달했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에어비앤비는 2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창의적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잃지 않은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피터 드러커는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식민지와 6·25전쟁을 겪은 한국이 최고

의 기업을 길러낸 것도 기업과 개인이 바뀌보자는 기업가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잃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중·일 청년창업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 대학(원)생의 창업 선호도는 6.1%로 중국의 40.8%에 비해 매우 낮았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샤오미를 비롯한 IT 창업기업의 약진, 국가차원의 지지에 힘입어 청년들의 창업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안정적 직장 선호와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 구축 미흡 등으로 창업 활기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서 창업 선호도가 낮은 이유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고 정의한 드러커가 지금 한국을 보면 실망이 클 것이다.

다행인 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저성장, 저소비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기업 안팎으로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재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는데 역부족이다. 창업 초기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각오와 강한 실행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폐허가 된 우리 땅에서 창업에 뛰어들어 현재의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산업화 시대의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끊임없는 도전정신, 근면성, 성실성이었다. 여기에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진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집단지성과 혁신성을 더해 한국 고유의 기업가정신으로 거듭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경제 주역이 될 청소년부터 창조적인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마침 정부도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미래 한국 경제의 희망찬 비상을 기대해 본다.

<본 기고문은 2016년 2월 11일 자 조선비즈 '김교태 경영산책'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넷 뱅크, 금융시장의 건강한 메기로 성장하길 바라며



MCS1본부
장지수 전무

ADVISORY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득한 K 뱅크, 카카오 뱅크는 올해 상반기 중 본인가 승인 후, 올해 말까지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적 설비, 물적 설비, 리스크 관리 체계, 소비자 보호체계, 사업모델 구체화 및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금융 산업에 건전한 메기효과* 역할을 더불어 기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현장에서 인터뷰해보면 기존 금융권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기존 은행이 추구하는 온라인, 모바일 뱅크의 전략과 차별화, 은행 대비 신용관리 노하우, 카드 캐피탈사가 선점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카드사와 VAN사가 구축한 프로세스와 비교해 비용 외에 편의성과 신뢰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등이 주요 골자이다.

긍정적인 견해는 간편한 금융거래 프로세스, 낮은 수수료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뿐만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거래하는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나 크라우드펀딩(Cloud Funding), 시장 환경에 따라 자동화된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온라인 전문은행도 성장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5%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첨단인 핀테크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몇 가지 주요 서비스가 고객에게 소구될 경우, 디지털 DNA를 가진 국민 정서상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올해 인터넷 은행의 핵심 과제는 결국 성공적인 본인가 획득 및 사업 개시에 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Compliance 수준을 제대로 갖춰

야 한다는 점과 성공적인 IT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없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인터넷 은행이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초기에 보안사고 혹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 고객의 불신을 살 경우에는 해답이 없다.

특히 IT 측면에서 인터넷 은행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고, 처리계 시스템은 In House 방식으로 구축된 기존은행의 시스템과 다르게, Ready Made Solution 등을 통해 구축 예정에 있다. 개발 기간, 비용, 확장성을 고려해 선택한 대안이지만 기간이 짧고 국내 은행에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라 보안 및 완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은행은 ‘업계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First Mover’ 타이틀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즉 시스템 측면에서 완벽한 상태가 담보된 상태에서 사업개시가 돼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택도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오픈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올해 한국 금융시장은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의 탄생을 맞이한다. 인터넷 은행이 기존의 획일화된 금융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특화 금융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IT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은행이 되었으면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시로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한 메기’ 역할을 넘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혁신 은행’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본 기고문은 2016년 2월 26일 자 디지털타임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메기효과(catfish effect): 메기로 미꾸라지를 생존시키는 현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한 이론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미.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Talk! 연결고리

이색삼정★

Purpose Story

가자 세계로!

행복충전소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이성욱 상무가 이채능 S.Manage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칭찬주인공

IM2본부
이채능 S.Manager



“긍정적인 모습으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lobal Tax 이성욱 상무



안녕하세요! Global Tax의 이성욱입니다.

처음 정재훈 과장이 <Culture Relay>에

저를 추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상당히

쑥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저의 어떤 모습이 동료들의 기억에는 남을 수

있겠구나 싶어 '한순간도 허투루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Culture Relay>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은 IM2의 이채능 S.Manager입니다.

제안서를 준비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 다른 본부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한 팀원 서로가 믿으면서 즐겁게 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상황에서 팀원을 믿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채능 S.Manager와는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저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믿음을 줬고, 고객 담당자로부터도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채능 S.Manager가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채능 S.Manager에게 김홍신 작가의 『인생사용 설명서』를 추천합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 하나이며, 책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 등 삶의 지혜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줍니다. 이 책을 통해 이채능 S.Manager의 삶 속에서 열정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채능 S.Manager에게 책 『인생사용 설명서』를 선물합니다!’



『인생사용 설명서』 김홍신 저 / 해냄출판사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침서 『인생사용 설명서』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이 대중 강의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강의기록을 다듬고 고쳐 수록한 책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7가지 질문에 대해 작가만의 통찰력 있는 답을 담고 있다.



동명이인 삼정인! 같은 이름, 서로 다른 우리

시대별 선호하는 이름이 다르다고 한다. 이름도 유행을 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학교나 회사 등 어느 조직에서나 한두 명쯤 동명이인이 있기 마련이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이름으로 웃긴 해프닝도 많았을 법인의 동명이인 4인방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반갑고 친근한 ‘동명이인’

김철: 2010년 10월, 입사하고 나니 주변에서 제 이름과 똑같은 상무님이 계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바로 JP본부의 김철 상무님이셨죠.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상무님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고 반갑게 첫인사를 나눴어요. 그 후부터 자주 뵈진 못하지만 만나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친근함이 진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김철: 이름도 같은데, 직급도 같은 분이 입사하셨다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나눴어요. 같은 이름인 덕에, 잘 못 송부된 메일과 연락들로 자주 연락할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했어요.

김진영: 반가워하신 상무님들과 달리, 저는 솔직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미국 Korea Desk에서 돌아오셨을 때, 같은 본부로 배정받으셔서 많이 놀랐죠. 같은 이름이지만 성별도, 직급도 달랐기에 먼저 다가서기 어려웠어요.

김진영: 하하. 그럴 때가 있었네요. 지금은 정말 편한 선후배 사이예요. 이름도 같은데, 어쩌다 보니 같은 프로젝트만 진행하게 되어서 막역해졌죠. 근데, 진영이라는 이름이 여자, 남자 모두에게 꽤 인기가 있는 이름인 가봐요. 한때는 법인에 이름이 같은 분들이 5~6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희 본부에도 이진영 S.Senior가 있으니 말이에요.



김철 상무(JP본부)

‘金鐵’, 강인하고 남자답게 살아가라

김철 상무(FS Tax본부)

‘金哲’, 세상을 밝게 빛나라

‘어라, 저 아니에요!’ 웃음 가득 에피소드

김진영: 인기 있는 이름 덕분에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어요. 이사님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저는 인차지로 함께 일하기에 제안서 이름에 매니저 김진영, 인차지 김진영이 들어가 있으면 고객 분들이 ‘앗! 오타 있어요.’라고 많이 지적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타 아니라고 동명이인이라고 먼저 이야기 드려요.

김진영: 외부 분들에게 전화가 잘 못 올 때도 많았죠. 여자가 반아야 하는데, 걸죽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하하. 한데, 본부 내에서는 직급이 달라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김진영: 요즘에는 메일주소에 직급도 추가되어 메일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무님들께서는 직급도 같으셔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김철: 내부에서는 이미 김철 상무가 2명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 큰 해프닝은 없었어요. 삼정인이 저희 모르면 간첩이죠. 하하. 그런데 ‘Cheol’ 영어 철자까지 같아 해외에서는 많이 헷갈려 하죠. 한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영어로 김철 상무를 찾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분이라고 간신히 설명하고 끊었죠. 다행히도 러시아식 영어라 서툰 영어 실력에도 잘 들리더라고요. 상무님 덕분에 실전영어에 강해지고 있어요.

김철: 저는 일본에서 메일이 많이 왔어요. 일본어에 일자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본부 관련 업무일 수 있기에, 꼼꼼히 살펴봤죠. 한데, 보면 JP 상무님께 온 메일이에요. 초창기에는 이런 메일을 받으면 친절히 내용과 함께 메일을 전달드렸는데, 이제 서로가 그런 메일이 많다 보니 ‘FYI(For Your Information)’라고만 남기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진영 S.Manager(ICE2본부)

‘金珍英’, 꽃처럼 아름답고 보배롭게 살아가라

김진영 Director(ICE2본부)

‘金珍詠’, 보배롭게 살아가라

서로의 이름을 빛낼 수 있기를!

김철: 동명이인이 꼭 불편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신 JP 김철 상무님 덕에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름이 되었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을 보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고 하듯,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이름이란 것에 좋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미로 ‘김철’이란 이름이 많이 불릴 수 있도록 상무님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철: FS Tax 분야에서 상무님께서 워낙 뛰어나신 실력가라 승승장구하실 거라 믿어요. 저 역시도 말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며 ‘김철’이란 이름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합시다.

김진영: 저희도 서로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함께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법인에서도, 고객에게도 ‘김진영’ 하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무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저 역시도 이사님께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빴던 시즌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마치고 싶어요. 끝으로 “이사님, 앞으로도 환상의 호흡으로 함께 일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삼정KPMG 테니스 플레이어 IGH본부 김승범 S.Senior

“테니스 愛 빠진 이유, 궁금하신가요?”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등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들을 칭할 때, 우리는 ‘테니스의 황태자’라고 부른다. 테니스를 향한 열정만큼은 테니스 황태자를 뛰어 넘는 삼정인이 있어 만나보았다. 미국으로 테니스 단기유학까지 다녀온 김승범 S.Senior를 소개한다.



1. 테니스로 똘똘 뭉친 테니스 동호회원들과 함께 바이(V) 2. 김승범 S.Senior가 테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3. 멋진 포즈로 테니스 서브 중인 김승범 S.Senior

테니스, 멋지고 아름다운 스포츠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경기, 테니스.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의 대명사였지만, 이젠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삼정KPMG에서 테니스를 빼놓고 논하면 서운한 김승범 S.Senior가 테니스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멋지고, 신사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노박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인데요. 조코비치는 백핸드가, 페더러는 포핸드가 정말 멋집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답게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한 포즈로 테니스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죠. 무엇보다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신사적인 스포츠라 언젠가 한 번은 배우고 싶었죠.”

그가 처음 테니스 라켓을 잡은 것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공부를 시

작할 무렵이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김 S.Senior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그를 테니스 코트장으로 이끈 것이다.

“문득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취미생활 하나 없이 회사에서 집으로 반복되는 삶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정해서 진득하게 해보기로 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소 운동 신경이 뛰어나 다양한 운동을 해왔던 김 S.Senior. 테니스 역시 민첩한 몸으로 코트를 누비며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배우면 배우수록 어려운 스포츠란 것을 깨달았단다. “테니스를 배워보니 민첩한 방향 전환과 빠른 판단력, 또 공을 밀어치는 파워 등 훈련해야 하는 것이 많아 절대 만만한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와 더 잘하고 싶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테니스 열정으로, 단기유학에 나서다

테니스를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김승범 S.Senior는 야심 차게 테니스 단기유학을 결심했다. “테니스 유학이라고 말하니, 많이 거창해 보여 조금은 쑥스럽네요. 테니스를 평생 운동으로 생각하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원들에게는 1년 전부터 테니스를 배우러 잠깐 실 예정이라고 미리 이야기 했지만,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죠. 하하. 그러다 작년 6월경에 상무님께 솔직하게 ‘테니스 유학을 가고 싶어 잠시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자연스레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게 됐어요. 놀랍게도 상무님, 본부장님께서 허락해주셨고, 짧은 휴직이었지만 송별회도 해야 한다며 본부원들과 함께 송별회까지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상무님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신 덕분에 걱정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김승범 S.Senior는 모아둔 약간의 돈과 마이너스의 통장의 힘을 빌려 가장 유명하다는 미국의 한 아카데미로 지난해 8~12월까지 테니스 단기유학을 다녀왔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유학길에 나섰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초반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초가 될 때까지 테니스를 시키는데 ‘아, 한국 돌아가면 테니스 라켓은 더 이상 잡지 않겠구나!’란 생각마저 들었어요. 하루 일정이 아침 식사, 오전 테니스, 점심, 오후 테니스, 저녁 식사, 잠이었어요. 한 마디로 밥 먹고, 자는 것 빼고 모든 시간을 테니스로 보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S.Senior는 되돌아보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시간이라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테니스를 배우고,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큰 에너지를 얻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아요.”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회계사!

테니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김승범 S.Senior는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테니스로 얻은 새 활력이 어떤 업무에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 것. “일이든 테니스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 보람도 느끼고요. 무엇보다 요즘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물론 감사시즌이라 몸은 조금 힘들지만요.”



4. 테니스 유학 시절 함께한 친구들 5. 미국에서 테니스를 알려주신 코치님들과 친구들이 함께한 단체사진

일과 삶,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김승범 S.Senior는 본인은 Work & Life Balance를 잘 맞춰 지내는 것이 아닌, 아직은 그저 Work와 Life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직업 특성상 Work & Life 균형을 맞추기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틈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했기에, 이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운동이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주기 때문이죠.”

바쁜 일상 속에도 본인의 삶을 진정 즐길 줄 아는 김승범 S.Senior의 꿈은 무엇일까? “Work & Life 균형을 유지하는 큰 걸림돌이 Work이기도 하지만, 큰 디딤돌 또한 Work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고, 항상 노력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회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응원해주실 거죠?”

김승범 S.Senior가 전하는 테니스 입문자에게 전하는 조언

“관심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라만 보고 있기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거든요. 지금 막 시작한 분이시라면, 경험상 좌절에 기간이 올 텐데요.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또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인 사내 동호회도 있는데,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삼정KPMG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 중 남다른 취미 활동과 흥미로운 경력을 소유한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Channel>에서는 신규 칼럼 ‘이색삼정스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추천해주시는 삼정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문의 BD&Markets 홍보팀 김수지 대리 sujikim@kr.kpmg.com/ 02-2112-7567

Our Higher Purpose

지난 3월 삼성KPMG는 국내외 대학(원)생들에게 우리의 Purpose를 알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인 내부에서 Purpose를 내재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 역시 KPMG의 Purpose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Purpose 활동을 전개했다.

Purpose Activation Inside Out

KPMG Purpose를 온전히 느끼고 공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 중 하나는 'Inside Out'. 내부 구성원이 먼저 Purpose를 이해하고 내재화했다면(Inside),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KPMG의 Purpose를 느끼게 하는 것(Out), 즉 이제는 내부에서 밖으로 Purpose를 전개해야 한다.

삼성KPMG가 Purpose 여정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KPMG의 일원이라면 Purpose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는 Purpose를 알리기 위한 Inside Out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 3월 삼성KPMG 본사에 네덜란드 MBA 학생들과 이화여대 MBA 학생들이 찾아왔다. 이들이 느끼고 생각한 Our Higher Purpose를 소개한다.

로테르담 경영대학원 학생, KPMG Purpose를 이해하다

지난 3월 7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경영대학원(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학생 25명이 삼성KPMG를 방문했다. 로테르담 경영대학원은 세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유럽 TOP10의 에라스무스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으로, 매년 해외 여러 나라의 주요 기업을 방문해 문화 및 비즈니스 실습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한국의 삼성KPMG를 방문해 기업 문화, 가치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강연으로 L&D 서지희 전무가 'Purpose Journey'라는 주제로 KPMG가 그동안 어떤 Purpose 활동을 펼쳐왔는지 소개하고, 우리의 Purpose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로테르담 경영대학원 책임자로 참석한 Esmee는 "이번 삼성KPMG 방문은 우리 학생들이 KPMG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다들 KPMG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잘 몰랐었다. 이번 방문이 좋은 기회

가 되었으며, Purpose를 통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KPMG라는 회사가 멋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Deal Advisory3본부 김진만 전무의 'DA Transformation' 강연으로 학생들은 학술적 측면에서 실제 비즈니스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강연을 통해 KPMG가 '혁신적(Innovative), 주도적(Driven), 상호적(Interactive), 임직원 지향적(Employee Oriented), 현대적(Modern), 동기 부여적(motivating)' 회사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답했다. 놀라운 점은 우리의 Purpose를 접한 몇몇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Purpose를 고민하고 정리했다는 것이다.

로테르담 대학원생들이 생각한 Purpose



Jan Bellers

"저는 스스로 한층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단지 업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KPMG와 같은 Purpose를 가진 Professional Firm이라면 제가 추구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ga Hajduk

"저는 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며 제가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Zhang Zi (Bob) Feng

"저를 포함하여 여기 온 학생들 모두 KPMG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Firm이며 내부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보탬이 되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 이화여대 MBA 학생들과 기업의 Why를 논하다

지난, 3월 11일 오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MBA 학생들이 27층 Vision 룸을 찾았다. '기업이 Why를 논하다: KPMG Purpose'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우리가 '왜(Why)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KPMG의 Purpose Journey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PMG를 비롯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Purpose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리며, 삼정KPMG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Purpose Activity를 소개함으로써 KPMG와 Purpose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화여자대학교 MBA 학생들의 Purpose



김솔네

"저는 'Purpose가 무너지면 조직의 How, What이 무너지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 또한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정은선

"조직문화 활동으로 12시간의 무박 산행을 했던 것. 회사의 이익추구보다는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달려가는 점이 인상 깊었고, 저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도 삼정KPMG는 KPMG Story의 5가지 요소 중 하나로 Purpose Journey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우리가 느끼고 공유한 Purpose를 이제는 KPMG의 16만2천여 명의 구성원을 넘어 우리의 Community,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Inside Out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베트남 Korea Desk 정대훈 S.Manager

인도차이나의 떠오르는 나라 베트남

<가자 세계로!> 4월호에서는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즉 베트남에 대해 알아본다. 베트남 Korea Desk에서 근무 중인 정대훈 S.Manager가 소개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자.

베트남의 경제수도 역할을 하는 호찌민시의 화려한 야경



인도차이나의 젊은 공산국가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에게만 천만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에서처럼 월남 전으로 가장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외화벌이에 큰 공헌을 한 월남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은 40여 년간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제국주의 세력을 자국의 힘으로 물리친 국가답게 국민의 자존심 및 자부심이 강합니다. 정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렴한 인건비와 젊은 노동력,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국에 이은 제2의 세계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9천만 명을 넘지만,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아직은 1인당 평균소득이 2천 불대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패션과 연예인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들의 모습을 비교했을 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북쪽)와 경제적 수도인 호찌민시(남쪽)는 비행시간만 1시간 50분가량입니다. 하노이시(북쪽)는 아열대기후로 4계절이 있고 여름에는 40도가 넘고 습도도 높지만 겨울에는 0도가

카이 떨어집니다. 반면, 호찌민시(남쪽)는 연중 낮 기온이 30~35도 가량이며 우기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스콜(Squall)이 내려 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엄청난 길이의 해안선을 따라 하롱베이, 다낭, 나트랑, 푸꾸옥과 같은 관광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쌀, 커피, 원유, 석탄 등을 주로 재배, 채굴하여 수출하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나 가공시설이 없어 오히려 석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자연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목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자의 생산품입니다.

쌀국수, 오토바이와 커피의 나라

한국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쌀국수는 베트남에서도 주식일 정도로 베트남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다만, 고수라고 불리는 상차이의 강한 향을 참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와 농라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은 적어도 시내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이동수단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그러하듯 오토바이가 주로 사용되는데,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향시 도시를 감싸는 길고 두 겹게 늘어선 오토바이의 행렬에 '감히 베트남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베트남 여행 및 단기 출장을 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오토바이와 상대차량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인은 세계 3위 커피생산 및 수출국답게 커피를 즐깁니다. 목욕탕식 의자에 노점식으로 파는 쌀국수, 커피, 주스 등은 다닥다닥 붙어 주차한 오토바이와 함께 인도를 장악하고 있어 지인과 함께 횡령로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점뿐만 아니라 몇 걸음 가지 않아 곳곳에 찾을 수 있는 커피전문점은 아직은 가난한 나라이기에 신기한 풍경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노래를 무척 사랑하며, 거리 곳곳에 가라오케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행사 등이 있을 때면 옥외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불륨을 최대로 하여 즐깁니다.

베트남인들은 아마도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일 것 같습니다. TV 대부분의 스포츠 채널에서는 축구를 방영하고 자국 리그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반도의 경쟁국과의 경기는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베트남 Korea Desk, 韓 기업 성장 위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할 것

처음 KPMG 베트남을 방문하고 나서 놀란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국어가 아니고 웨스

턴식 영어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영어인지 베트남어인지 처음에는 귀에 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실력에 놀라웠습니다. 베트남어의 어순이 영어와 같고, 베트남 문자가 알파벳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쉽게 영어를 체득하는 것 같습니다.

KPMG 베트남은 하노이시, 호찌민시, 다낭시, 프놈펜시(캄보디아)에 4곳에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1,000명에 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계/세무/컨설팅 전문가 집단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법무법인도 추가돼 Big4 중 처음으로 기존의 라이선싱(투자허가) 업무와 더불어 M&A 법무실사, 계약검토, 노무관련 업무 및 독립성 이슈가 없는 소송업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베트남 Korea Desk는 현재 70~80개의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및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환경에 따라 관련 세무/회계 정보도 제/개정이 빈번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여러 산업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베트남 Korea Desk는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CONTACT US

베트남 Korea Desk 정대훈 S.Manager
Tel. +84838219266 E-mail. hoonjeong@kpmg.com.vn



1 KPMG 베트남의 하노이 오피스 2 정대훈 S.Manager와 동료들이 함께한 모습 3 베트남 Korea Desk가 위치한 KPMG 호찌민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삼성KPMG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Benefits Program'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아빠가 간다', '삼삼오오'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이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아빠가 간다!'

아인아! 생일 축하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주민영 S.Manager(Deal Advisory4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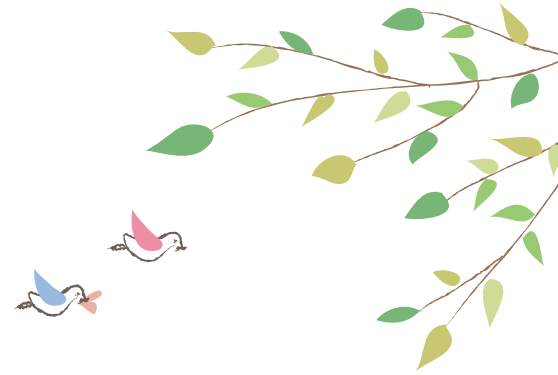
생(生)이란 흐름 속에 맞이할 많은 생일 중에 아인이가 맞이하는 세 번째 생일. 느낌이 어떤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직은 언어를 빌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참 궁금하구나.

아인이의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아빠,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인이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아빠 회사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 이런 큰 사랑을 아인이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 더 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인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3년 전 1.08kg으로 태어난 아인이를 보며 '건강하게 앞으로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 아인이는 언제 그런 적 있냐는 듯이 건강하고 예쁘게 성장해줬구나. 우리 아인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또 큰 아픔 없이 자라주어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랑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인이의 생일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자꾸나.
아인아, 생일 정말 축하해.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아빠가.





‘삼삼오오’



나는 이야기만큼이나 깊어진 우리들의 우정

함윤성 Associate(B&F1본부)

삼삼오오에 당첨된 우리는 연수동기로 연수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몇 번의 신청 끝에 드디어 삼삼오오에 선정돼,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는 강남역 오뚜라는 쭈꾸미 집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삼정KPMG만의 유익한 프로그램인 ‘삼삼오오’를 통해 동기와 의 우정과 단결력을 기를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도란도란 웃음꽃 피우며 삼삼오오를 즐기다

김용현 Senior(Global Tax본부)

입사 연수 과정에서 만난 팀원들이 삼삼오오를 통해서 비지 시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입사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년 차가 된 동기들을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피자과 스파게티를 먹으며, 각자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거리도 들어주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동기들과 함께 도란도란 웃음 꽃피우는 시간을 가져 행복했습니다. 평소 바빠단 핑계로 소홀히 했던 분들이 있다면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사소한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주는 동료들과 함께!

권일호 Analyst(Deal Advisory2본부)

우리가 향한 곳은 강남역에서 핫하다는 맛집! 잠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입속에 음식물을 가득 넣어둔 채로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차 부서에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바쁜 와중에도 새로 생긴 여자친구, 역삼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각자 다른 분야에 속해 있다 보니 각자가 속한 업계 관련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간접경험도 누릴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도 가질 수 있게 되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EWS

SPECIAL NEWS

삼성KPMG,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으로 임직원 다양성 존중 및 평등 지향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었다. KPMG Global에서는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등을 위한 서약(Pledge for parity)'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KPMG 임직원들이 양성 간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다짐을 서약하는 것이다. 삼성KPMG 역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의미로 이

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KPMG 임직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담은 서약을 진행 중이며, 3월 24일 기준으로 약 50명이 서약에 참여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났지만, '평등을 위한 서약'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삼성KPMG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Empowering Change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쉴만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UN이 공식 지정함.

삼성KPMG 임직원들의 평등을 위한 서약

I pledge to create
inclusive,
flexible cultures for both
men and women.
이해성 Associate (B&F1)

I pledge to support
culture change that will
empower growth for
women in business.
서지희 전무 (DPP-L&D)

I will support an
inclusive and open
culture where gender
diversity thrives.
이주영 S.Manager (IM1)

The most alluring thing
a woman can have is
confidence.
Support to be confident!
박연정 Consultant (ITC)

I pledge to help women
gain confidence to attain
leadership positions
이하늬 S.Analyst (Deal Advisory4)

I pledge to help
women juniors achieve
their ambitions.
양승렬 부대표 (IC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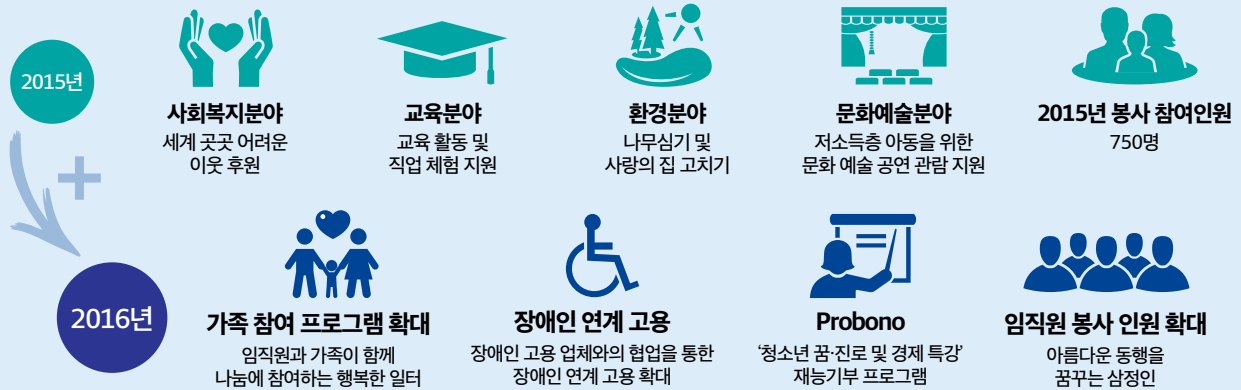
I pledge to help
women to achieve
good career experience.
신상현 S.Manager (Deal Advisory2)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삼성KPMG

삼성KPMG는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에 앞장서고 있다. 사내 사회복지위원회(CSRSG)와 (사)삼성 사랑나눔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을 전개해온 삼성KPMG의 2015년 사랑나눔 활동을 살펴본다.

한눈에 보는 CSR 활동



삼성KPMG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750명의 임직원들은 사랑의 밥상, 국수나눔, 제과제빵 등 지역사회 사랑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네팔 지진피해복구, 장애인 단체,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다문화가정 교육 활동 지원, 현장 직업 체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지원 등으로 미래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비타트 운동을 전개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KPMG는 지난해에 지속해온 나눔 활동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재능기부, 장애인 연계 고용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진로 탐색 및 경제 교육 특강을 지원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할 예정이며, 수제쿠키, 인쇄, 화환 등 장애인 고용 업체와 협업하여 장애인 연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NOTICE

▶ 삼성KPMG 2016년 사업 계획 발표회

· 일시 : 4월 25일(월) 8:20~11:45 · 장소 : GS타워 아모리스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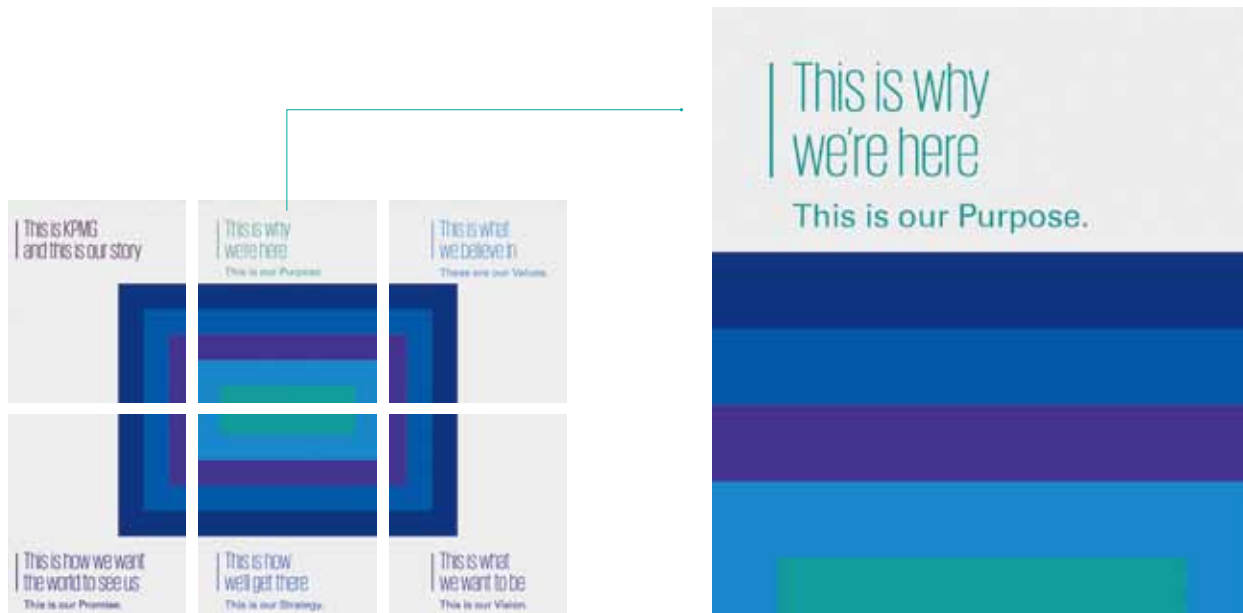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KPMG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KPMG에서 일하고 있는가? KPMG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Purpose는 Why에 대한 것입니다.

Purpose는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을 넘어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소명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Purpose는 우리의 고객에게 Purpose가 이끄는 윤리적인 조직, KPMG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